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소의 길은 다양하고 풍요롭습니다. 그 성소의 길이 결혼성소든, 수도성소든, 사제성소든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성소이든 모두 다 각각의 특별하고 고유한 자기의 길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완성해 나가는 삶이 자신의 성소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불림 받은 것은 ‘혼인성소’ 라고 하는데, 교황 권고에서 “가정은 하느님 나라에 봉헌된 생활을 위한 성소의 일차적이고 가장 훌륭한 못자리” 라고 설명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결혼은 마치 사제성소나 수도성소처럼 하나의 부르심” 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제성소(교구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본당을 책임지고 봉사하는 사목자로서의 소명이며, 수도성소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며 복음적 권고(청빈, 정결, 순명)를 살아가는 성소이기에 ‘실존적 성소’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도성소의 의미는 봉헌생활이 탄생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봉헌생활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오(251-356)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려는 열망으로 이집트 사막 깊숙이 들어가 철저히 고행을 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후 로마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사막으로 들어가 봉헌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고행을 하면서 박해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죠. 즉, 수도자들은 복음을 보다 철저히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청빈, 정결, 순명의 삶을 실천하고 교회의 본질적 차원과 사명을 드러내는 이들입니다. 또한 수도성소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도록 부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내 자신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소는 일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성소자들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수도성소를 느끼고 수도자가 돼 그 삶의 고리를 벗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성소에 담긴 예언자적 소명을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할 일은 ‘하느님 체험’ 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수반되고 봉헌생활을 통해 행복을 느낄 때, 비로소 성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쁨으로 봉헌생활을 살아가는 많은 수도자들과 젊은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교육선교위원회

(다해) 부활 제6주일  
(2022년 5월 22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일	목 (19:30)	주임 신부	정성훈 모세	93moses@gmail.com Cell: 216-801-0747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교사회 기도회	19:00	수요일
주일	10:00 (합동)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캐튼 기도회	20:30	수요일
캐튼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	----------	---------------------------------	--------------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